

2018년 통권 제 26권 제 3호

2018年度 史學科 秋季學術古蹟踏查



亞洲大學校 人文大學 史學科

목차

◎ 답사 일정

◎ 답사를 준비하며

<관동별곡(關東別曲)>

I. 우리가 가는 길	1
1) 영월지역개관	2
2) 정선지역개관	5
3) 평창지역개관	9
4) 강릉지역개관	11
II. 첩첩산중(疊疊山中) 속 애환	15
1) 단종의 애환, 장릉	16
1-a) 능의 구조	18
2) 민족 정서의 투영, 정선 아리랑	22
3) 고요속의 월정사	25
III. 만경창파(萬頃蒼波) 속 풍류	28
1) 부수어지는 파도, 경포대	29
2) 사대부들의 풍류, 선교장	31
3) 완벽한 구조와 기능, 강릉향교	34
3-a) 관료의 길	36
4) 옛 강릉의 관공서, 강릉대도호부 관아	38
5) 율곡 이이의 출생지, 오죽헌	41
5-a) 오죽헌 내 전시관	44
IV. 참고문헌	47

답사 일정



2018년 사학과 추계 학술 고적 답사

2일차 <9월 28일 금요일>

8시 기상

9시 출발

09:00 ~ 09:10 아침식사(이동)

09:10 ~ 10:10 아침

10:10 ~ 10:20 이동(선교장)

10:20 ~ 11:00 선교장

11:00 ~ 11:10 이동(강릉향교)

11:10 ~ 11:40 강릉향교

11:40 ~ 11:50 이동(강릉대도호부)

11:50 ~ 12:20 강릉대도호부

12:20 ~ 12:30 이동(오죽헌)

12:30 ~ 13:30 오죽헌 + 점심식사

13:30 ~ 16:00 아주대학교 이동

1일차 <9월 27일 목요일>

08:50 ~ 09:00 집합 및 인원체크

09:00 ~ 11:00 이동(장릉)

11:00 ~ 12:00 장릉

12:00 ~ 12:30 점심식사

12:30 ~ 13:10 이동(정선 아리랑)

13:10 ~ 14:00 아리랑 박물관

14:00 ~ 15:20 아리 아라리 공연

15:20 ~ 16:30 이동(월정사)

16:30 ~ 17:10 월정사

17:10 ~ 18:10 이동(저녁)

18:10 ~ 19:10 저녁식사

19:10 ~ 19:40 경포대

19:40 ~ 19:50 이동(숙소)

19:50 ~ 20:30 정비 및 휴식

20:30 ~ 22:00 세미나

답사를 준비하며

안녕하세요. 2018년도 사학과 학생회 ‘하울’ 부학생회장 17학번 이승현입니다. 이렇게 2학기 추계답사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1학기 춘계답사를 성공리에 마친 만큼 2학기 추계답사를 준비하면서 1학기보다 더 좋은 주제와 볼거리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 준비과정에 있어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사지를 저의 고향인 강원도로 정하게 되었고 강원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과 바다 이기때문에 답사주제도 ‘관동별곡’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동별곡이라고 하면 대개 정철의 관동별곡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 답사주제는 정철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아름다운 강원도의 산과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문화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관동별곡이며 세부주제는 첩첩산중(疊疊山中) 속의 애환과 만경창파(萬頃蒼波) 속의 풍류로 산과 바다를 다니며 아름다운 풍경들과 각각의 문화재들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계답사는 이전의 답사들과는 다른 점이 아리랑 공연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공연을 볼지 아니면 다른 유적지를 가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지리적 특징과 이러한 특징으로 나타난 문화재들을 보려고 답사를 왔기 때문에 유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도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리랑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계답사에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과 학생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며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아름다운 자연과 유적지들을 구경하시면서 의미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동별곡

(關東別曲)

I. 우리가 가는 길



9월 27일 (목)	TP1	TP2	TP3	TP4	
	장릉	정선 아리랑 박물관	월정사	경포대	
9월 28일 (금)	TP5	TP6	TP7	TP8	TP9
	선교장	강릉 향교	강릉 대도호부	오죽헌	강릉 시립박물관

1) 영월지역 개관

18 김주영

영월지역 소개



▲영월 지역의 고지도, 광여도 (19세기 초, 소유처-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는 영월은 평창강의 하류와 북한강이 합류하는 삼각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영월이라는 이름은 ‘험준한 산과 굽이치는 물줄기 등 자연 장애를 쉽게 넘는다’¹⁾는 뜻으로 고려 때 붙여졌다. ‘험준한 산’은 영월이 태백산맥과 차령산맥에서 뻗어 나온 두위봉, 백운산, 태화산 등 크고 작은 산들이 중첩된 내륙산간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굽이치는 물줄기’는 영월을 둘러싼 산 사이에 주천강, 평창강 등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북한강의 지류가 되어 합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정

추(鄭樞)라는 사람은 ‘칼 같은 산들이 엮히고설키었는데, 비단결 같은 냇물은 맑고 잔잔하여라’고 시로 읊기기도 했다.

영월지역의 역사

영월지역은 구석기인의 거주 지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먹도끼, 찌개 등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어서 이 지역에 구석기시대의 인류가 살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삼한시대 때는 마한, 진한, 변한 중 진한의 일부였고 4세기 초부터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한강 하류지역 일대를 차지하면서 영월지역은 백제에 속하게 되었다. 당시 이 영월지역은 100가구 넘어서 ‘백제의 백월(白越)’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이후 고구려의 미천왕이 낙랑군을 정복하고 점점 내려오고 한반도의 동남부에서 신라가 팽창하여 북상해 오면서 영월지역을 포함한 한강 이남의 중부 지방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전이 되어버렸다. 미천왕 이후 몇 년이 지나 장수왕이 고구려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 유역을 공격해 점령해 버린다. 이로 인해 백제의 고국원왕이 전사하게 되고 한강 유역에 속해 있었던 백월(白越, 지금의 영월)이 고구려의 땅으로 편입되면서 ‘내생

1) 임호민(관동대학교 사학과), “영월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년

현(奈生縣)’으로 불리게 되었다. 몇 백 년이 지나 신라가 676년에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리친 후, 신라가 통일신라가 되어 ‘내생현’을 ‘내성군(奈城郡)’으로 개칭했다. 통일 신라 시기 때, 영월은 9주 5소경 중 명주(溟州)에 속하게 되었다. 신라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면서 후백제, 고려(후고구려)가 한반도 땅에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영월은 고려에 영원히 속하게 되었다. 이후 고려 왕조가 세워지면서 940년(태조 23)에 내성군이 ‘영월’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졌다. 태조 이후 영월은 원주, 증원도, 양광도 등에 속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영월은 언제 강원도로 귀속되었을까? 역사상 태종 때 강원도로 귀속되었다. 그렇지만 고종 32년에 충주부로 원주, 평창, 정선 등과 함께 귀속되었다가 고종 33년에 전국을 13도로 나누면서 다시 강원도로 복귀하게 된다. 고종 33년 이후에 영월에는 다양한 마을들이 편입되고 다른 지역(원주나 정선 등)에 있는 ‘면’들이 귀속되면서 점점 커지게 된다. 그리하여 지금의 ‘김삿갓면’, ‘한반도면’, ‘무릉도원면’ 등이 생기게 되었다.

영월지역의 문화유산 및 문화재



▲영월 청령포. (소유처- 문화유산채널)

영월은 역사와 관련된 곳이다 보니 많은 역사적 문화재가 존재한다. 임진왜란 당시 고씨 가족이 피난했던 동굴인 고씨굴이 존재한다. 또 단종을 기리기 위해 만든 영월 단종의 능인 장릉이 존재한다. 단종이 수양대군 세조에 의해 영월로 쫓겨났다가 단종이 영월에서 승하했기 때문에 영월에 장릉이 존재한다.²⁾ 지금은 관광지이지만 예전에는 귀향지로 적격이었다. 그 이유는 청령포는 뒤가 산, 앞에는 바다로 이루어져 어느 곳으로 빠져나가기에도 힘든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종은 이런 지역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홀로 귀양살이를 하다가 목을 메어죽게 된다.³⁾ 장릉과 청령포뿐만 아니라 영월에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존재한다. 강원도의 유형문화재인 무릉도원면의 영월무릉리마애여래좌상이 존재하고 방랑 시인이자 현실을 풍자하는 시를 많이 쓴 김병연(김삿갓)의 거주지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2)3) 『조선왕조실록 중 단종실록』, 국사편찬위원회. 단종실록은 세조에 관한 내용 등을 왜곡하여 실록을 편찬했다. 그러므로 만약 단종실록을 사료로 쓰게 된다면 주의해서 단종실록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문화재들을 볼 수 있다.

이번 추계답사에서는 ‘관동별곡’을 주제로 위에서 개관한 영월뿐만 아니라 정선, 평창, 강릉 등을 답사지로 가게 된다. 강원도 지역을 답사로 가기 때문에 강원도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묘사하고 그들을 견문한 느낌을 적은 관동별곡을 주제로 잡게 되었다. 관동별곡이 아쉬운 점은 강원도 관찰사로 발령된 정철이 단순히 강원도를 구경하며 보게 된 자연의 풍경과 그에 대한 느낌만을 서술했다는 것이다. 역사적 유적지도 견문하고 그런 역사적 유적지에 대한 느낌도 서술하면서 관동별곡을 공부할 후대들에게 교훈을 주었다면 더 좋은 가사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답사를 통해 첩첩산중인 강원도에 외척에 의해 힘없이 쓰러진 한 어린 왕의 슬픈 역사가 묻혀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 영월 장릉, (소유처- 문화유산채널)

2) 정선 지역개관

18 윤예찬

정선지역 소개



▲ 정선지역의 고지도

정선은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들의 중심지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의 고향이다. 이러한 정선에 대해 좀 더 알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정선은 강원도 남동부에 위치한 군으로, 영서 산악지대로서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지역에 위치하여 영동과 영서지방의 분수령이 된다. 지리적으로는 현재 북쪽으로 강릉시, 북서쪽은 평창군, 남쪽은 영월군, 동쪽은 동해, 삼척, 태백시가 인접해있다. 또한 내륙산간에 위치하여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고 대부분의 지역이 높고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발고도가 높고 그에 따라 겨울이 비교적 긴 편이다. 지질은 지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석탄, 철, 금, 석회석 등 지하자원 매장량이 매우 풍부한 편이다.

또한 정선은 예로부터 풍속이 순박하기로 유명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46권 정선군 부분을 보면 여러 문인들이 정선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관찰하여 쓴 시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하나인 안축(安軸)의 시에, “산마을에 돼지 배부름은 반드시 새벽에 물 먹인 것이 아니요, 이웃집 닭이 살찌도 날마다 흠쳐가는 자 없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와 같은 구절들이 정선의 순박한 풍속을 방증해준다. 사료에서도 이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 <여지도>나 <광여도>, <정선총쇄록> 등 여러 사료에 나와 있는 지명, 도로 등이 정선이 영남지방과 동해안으로 통하는 중요한 연결노선임을 보여준다.

정선이 한강 상류에 위치했다는 점은 정선을 더욱 더 중요한 지역으로 만들었는데, 특히 삼국시대에 이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삼국시대 주요 국가들 중 특히 신라와 고구려는 모두 한강 유역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정선을 획득하기 원했고 이미 이 지역을 점령한 세력이 전투에서 여러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파악한 두 나라가 정선과 인근지역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많은 전투를 벌였다. 고구려, 신라 둘 중 어느 나라가 건축하였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애산성⁴⁾과 같은 문화재들을 보았을 때, 이 지역의 점령세력들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또 중요한 지역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정선지역 유래와 역사

정선은 인접지역인 제천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른 시기부터 인류가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사료를 통해 파악된 가장 이른 거주시기는 삼한시대이다. 『세종실록지리지』를 찾아보면 정선은 본래 삼한시대에 예맥⁵⁾의 땅으로 분류가 되어있었다. 삼한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영현으로 668년(보장왕 27)에 “수량이 넉넉하여 강줄기가 넓어진 고장”⁶⁾이라는 뜻을 가진 잉매현(仍買縣)이라 부르기 시작하였고 6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의 세력이 약해지고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 상류까지 세력을 크게 확장하면서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 신라의 삼국통일 후 757년(경덕왕 16)에 지금의 이름인 정선으로 개칭되어 명주(溟州)에 소속되었다.

후삼국 시기에 궁예가 원주를 거쳐 동쪽으로 진출하여 소백산맥 이북의 한강 유역 전체를 지배하였을 때 정선 역시 지배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삼봉(三鳳), 주진군(朱陳郡), 도원군(桃源郡), 침봉군(沈鳳郡)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었고, 1353년(공민왕 2)에 다시 정선군이라는 명칭으로 환원되어 지금까지 그 이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에 고려에게 충절을 맹세한 선비들이 자신의 심정을 한시로 읊은 것을 일반인들에게 전파하여 토착 민요와 감정을 더해 부르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를 우리가 익히 아는 정선 아리랑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한 시기로 본다.

조선시대에는 1466년(세조 12)에 원주의 관할 령이 되었다가 이듬해 정선군으로 부활되어 조선 말기까지 계승되었다. 후에 1895년에 강원도에서 충주 부 관할로 이전되었고, 다음 해인 1896년에 13도제를 실시하면서 정선은 다시 강원도 관할이 되었다. 조선시대를 지나 대한제국 시대에는 1907년부터 1909년에 걸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정선은 특히 의병활동에 있어서 전략상 내륙을 잇는 요충지로서 활약하였는데 험준한 지형과 높은 지대가 의병들의 은거와 공방전에 특히 많은 도움을 주었고 게릴라전을 전개하기에도 용이하였다. 후에 1919년에 3·1운동에도 수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국권을 지키고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지역이자,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상당히 불타올랐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4) 강원도 정성군 정선읍 애산리(愛山里)에 있는 테피식 석축산성.

5) 고대 만주지역에 거주한 한국의 종족 명칭.

6)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해방 이후 6·25전쟁 시기에는 공산 치하에 들어갔다가 우리 군에 의해 수복되었다가를 반복하다 우리나라의 영토로 남게 되었다. 전쟁 이전 1948년도에 세워진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 의해 시작된 석탄개발이 전쟁 이후 정선선, 태백선과 같은 여러 철도가 순차적으로 개발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탄 공급지가 되었다. 석탄 산업이 발달하자 자연스럽게 탄광 주변에 사택과 상가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지역 전체가 크게 발달하였다. 시간이 흘러 석탄이 석유로 대체되자 탄광산업이 서서히 쇠퇴했고 그에 따라 급격히 지역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는 폐탄광을 활용한 관광 상품, 산지 지형이나 강을 활용한 여러 레포츠 시설, 정선 오일장 관광열차, 정선 아리랑공연 등 다양한 관광 상품들을 개발하고 유치하는 등 지역 전체적으로 관광산업에 주력하여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정선지역 문화유산



▲ 정선 아리랑

유정서인 ‘한’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여성적인 가락과 흐름을 가지는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또 다른 문화유산으로는 신월리 고분군과 애산리 산성이 있다. 먼저 신월리 고분군은 정선 신월리 지역의 기우산 북쪽으로 뻗는 능선에 분포하는 고분군을 말한다. 이 지역에는 원래 많은 고분들이 분포하였으나 도로와 철도들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분들이 파괴되고 유적들이 훼손되었다. 또한 대다수의 고분들은 도굴이 된 상태였다. 그 와중에도 남아있던 고분들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돌덧널무덤과 토기9점, 금동귀고리, 가락바퀴 등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

정선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는 먼저 정선 아리랑이 있다. 정선 아리랑은 1971년 강원도 시도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인 아리랑의 형태 중 하나이다. 영동, 영서지역에 분포되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고 여러 아리랑 중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선 지역에서는 정선 아리랑보다 ‘아라리’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정선아리랑은 부르는 사람의 감정이 많이 담겨있는데, 특히 우리민족의 고

다. 출토된 토기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의 신라 토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뒤 축조된 여러 고분들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애산리 산성은 애산리에 존재하는 테피식 산성으로, 현재는 대부분의 외벽과 내벽이 무너진 상태이다. 인근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도중에 돌화살촉이나 깨진 기와 조각을 발견하는 사례도 많다. 성내에서 발견되는 유물이나 축조 방법 등으로 유추했을 때는 신라의 성으로 보기도 하지만 본래 정선지역이 고구려의 잉매현 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고구려의 성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축성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고려시대까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 애산리 산성



▲ 신월리 고분군

3) 평창지역 개관

18 최시영

평창지역 소개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는 평창은 군의 총면적은 1,463.9km²로 전국 군 중 3번째로 면적이 넓다. 주변은 정선군, 강릉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으로 둘러싸여있다. 평창군은 태백산맥 위에 위치하여 주위에 1300m을 넘는 산들이 위치하여 해발고도가 700m 이상인 곳이 과반을 넘는다. 대관령 면에는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지형을 설명 가능한 고위평탄면이 존재한다. 평창강은 평창 내에 흐르는 여러 개천들이 모여 흐르며, 평창읍에서 강하게 곡류하며 영월로 흘러 남한강으로 합류한다. 고도가 높아 고랭지 농업이 발달해 있고, 평창강 주위로 낙농업이 발달해있다.

▲평창 고지도 (광여도-규장각)

평창지역의 역사

평창지역은 구석기인의 거주 지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인접한 횡성과 홍천지역 등에서 유물·유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서도 오래 전부터 인류가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청동기 때의 고인돌이 다수 발견되었고, 부족국가시대 예맥국의 태기왕이 이곳에서 잠시 국가를 이루었다는 전설도 존재한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영토에 포함되어 옥오현 일명 우오현이라 불리었다.

그러나 이후 고구려의 남하정책과 신라의 팽창으로 인한 복상 등으로 현재 경기도 및 강원도는 삼국의 전쟁터가 되었고,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경덕왕 16년(757)에 옥오현은 백오현으로 개칭되어 내성군(현 영월군)의 영현이 되었다. 이후 그대로 유지되다가 후삼국을 거쳐 고려로 통합된 이후 태조 23년(940) 때 평창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평창현으로 개칭되어 원주의 속현이 된다. 충렬왕 25년(1299)때 현령이 파견되어 독립하게 된다. 우왕 13년(1387)에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의 고향이라 하여 평창군으로 잠깐 승격되었다가 다시 강등되었다. 하지만 조선 태조원년(1392)에 목조비의 고향인 관계로 군으로 다시 한 번 승격된다.

평창은 이때까지 작았으나 칙령 제 36호로 13도제가 실시된 이후 강원도 평창군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 강릉과 정선 등 주위의 군 또는 시에서 면을 편입 받

아 지금의 평창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후 시로는 승격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평창공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평창의 위상이 높아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평창지역의 문화유산



▲ 문수동자좌상

평창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총 16점이 있는데 그 외에 30점 이상의 문화재가 있다. 그중 노산성지는 임진왜란 당시 권두문과 군민들이 합심해 왜적과 싸운 격전지로 이후에 성황단을 세우고 군민의 안녕과 백의 의병의 넋을 비는 성황제를 지내며 현재는 군민의 날로 제정되어 문화축전이 되었다.

또한 국보에는 상원사 동종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 종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으며 신라 성덕왕 시기에 만들어 졌다고 추정되어 있다. 어느 절에 소속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조선 예종 때 현재의 상원사로 옮겨졌다고 한다. 국보 제 36호로 지정되어 있다.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동자상이다. 동자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는 ‘세조의 둘째 딸 의숙공주와 남편 정현조가 1466년 세조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문수동자상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작연대와 조선과정이 분명해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불교문화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월정사 8각9층 석탑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국보 제48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석탑은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평면이 사각형을 벗어나 다각형이 되고 층수도 다층으로 변하게 되는 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950년 한국전쟁 시에 전각이 소실되었으나 석보살상과 함께 살아남았다.

갑석위에는 연꽃을 새겼고, 상층기단면석의 각 모서리에는 기둥을 새겼다. 탑의 상층부에는 금과 동으로 장식을 했으며 석탑 안에서는 은제도금의 여래입상과 동경 경문 등의 사리장치가 발견되었다.

4) 강릉 지역개관

18 정은비



▲ 강릉 행정지도



▲대동여지도 강릉 부분
(서울대학교 규장각)

강릉지역소개

이번 사학과 추계답사의 테마는 정철의 ‘관동별곡’이다. 관동별곡은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뒤, 관동 지역을 유람한 후 절경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읊은 노래이다. 관동별곡 안에 강릉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강릉은 한반도의 허리라고 불리는 태백산맥 동쪽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동해바다, 서쪽으로는 홍천군 내면, 평창군 진부면, 대관령 면에 각각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동해시, 정선군의 임계면과 북면에, 북쪽으로는 양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해와 접해있는 64.5km의 긴 해안선은 강원도 해안선 중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서측은 오대산, 대관령, 석병산 등 1000m 이상의 높은 태백산맥에 접하고 있다. 해안 및 산악지역을 가지고 있어 해안형과 내륙형을 겸비한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역사적 문화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도시로서 고도의 멋과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이다.

강릉지역의 유래와 역사

강릉은 강릉토성지에서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부터 사람이 주거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부터 예맥족⁷⁾이 살던 곳으로, 기원전 129년에는 위만조선에 영속해있었으며, 기원전 128년에 예맥의 군장인 남려가 위만조선의 우거왕을 벌하고 한나라에 귀속 되었다. 이후 고구려 미천왕 14년(313년)에는 고구려 세력에 합치게 되어 하서랑 또는 하슬라라고 불리었다. 그 후, 신라 내물왕 때에 신라의 영역이 되었으며, 경덕왕 16년(757년)에 명주라 하였다. 명주는 진성여왕대의 농민봉기를 거치면서 궁예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 강릉지역의 지배세력은 궁예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데 지지기반이 되었다. 그 후 궁예가 축출되고 왕건이 왕위에 오르자 강릉세력은 왕건에게 불복하였다. 명주는 태조 19년(936년)에 동원경이 되었다가 후에 고려 충열왕 34년(1308년)에 강릉부로 개칭 되었다. 공양왕 때는 강릉대도호부가 있어 북쪽으로 원산에서, 남쪽으로는 울진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를 관할하였다. 강원도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조선시대 태조 4년(1395년)이고, 고종 33년(1896년)에 강릉군으로 되어 21개의 면을 관할하였다. 일제 시대인 1931년, 강릉면이 강릉읍으로 승격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인 1955년에 강릉읍, 성덕면, 경포면을 합하여 강릉시로 승격함과 동시에 강릉군을 명주군으로 개칭 분리 하였다가, 1995년 1월 1일 강릉시와 명주군을 통합하여 통합강릉시로 개칭, 현재의 강릉이 되었다.



▲ 강릉단오제 행사 중 신주빚기

강릉지역 문화유산

강릉의 문화유산은 대표적으로 무형 문화재로 등록된 강릉단오제가 있다. 강릉단오제는 단옷날을 전후하여 펼쳐지는 강릉 지방의 향토 제례 의식이다. 강릉단오제의 기원은 삼국지동이전에 기록된 제천의례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5월 단옷날 시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사가 남아있다. 신라는 시조 혁거세와 5묘(廟⁸⁾)를 정하여 한 해에 여섯 번씩 제사하였고, 가야에서는 시조인 수로왕에게 매년 다섯 번씩 제사를 지냈

7) 고대 만주지역에서 거주한 고조선 한민족의 종족명. 고조선의 중심세력이라고 추측됨.

8) 사당 묘. 조상의 신주를 모신 곳

다. 그 중 한 번씩이 단옷날이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가요 「동동(動動)」에 단오를 수릿날로 기록하고 있다. 「동동(動動)」은 단옷날을 맞아 천년을 장수할 약을 바치겠다는 의미인데, 수릿날을 상서로운 기운을 가진 절기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고려시대에는 왕이 조상에게 제사하고 불꽃놀이와 서민들의 돌싸움을 지켜볼 만큼 각별한 날이었다. 조선이 건국하면서 한때 단오놀이를 금지시켰으나 세종 때 부활시켜 병중인 태종과 함께 서민들의 돌싸움을 구경하였다. 단옷날은 사형집행을 금지시켰고 경국대전 형전에 금형일로 등재되어 있다. 왕에 따라 달랐지만 고려와 조선시대 때 단오를 공휴일로 지정한 경우도 있었다. 단오제는 음력 5월 5일 연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로 인식되면서 수릿날, 천중절, 중오절, 단양절 등으로 불렸다. 민간에서는 농작물의 생장이 왕성해 지는 시기를 앞두고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24절기 중에 손꼽히는 중요한 날이다. 우리나라 단오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강릉 단오제



▲ 오죽헌 (강릉시청)

는 풍년을 기원하는 파종제로서의 단오이다. ‘하늘에 제사하고 밤새워 즐긴다.’는 고대 제천의례가 기원인데, 이때 단오는 축제로서 공동체 신앙을 바탕으로 성장한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계절제라고 볼 수 있다. 강릉단오제에서는 산신령과 남녀수호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대관령사성황모시기를 포함한 강릉 단오굿이 열린다.

단오제는 4주 동안 계속되는데, 신에게 바칠 술을 담그고 굿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강릉단오제의 특징은 유교, 무속, 불교의 제례 의식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강릉단오제의 전통적 기능 중 하나는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강릉의 대표적인 다른 문화유산으로는 오죽헌이 있다. 오죽헌은 신사임당과 율곡이이가 태어난 집으로 조선 중종 때 건축되었다. 오죽헌 이름의 뜻은 검은 대나무가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여 진거라 추측한다. 한국 주택건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에 속한다. 오죽헌은 건축양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둥머리에 배치된 9)공포가 주택건축에서 보기 드문 이익공형식¹⁰⁾이며, 그 세부 수법으로 보아

9) 처마의 하중을 받는 부재들의 조합.

10) 익공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목조건축물의 기둥 위에 새 날개처럼 뻗어 나온 첨차식 부

가장 오래된 익공집 건축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쇄서의 곡선에는 굴곡이 남아 있고, 첨차의 형태는 말기적인 주심포집¹¹⁾과 공통되는 특징을 지녀 주심포집에서 익공집으로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조이다. 이러한 건축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죽헌은 1963년에 보물 제 165호로 지정되었다.

재로 장식적인 효과가 있음. 익공의 개수와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달라짐.
11)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한 고려 시대의 건축 양식.

II. 첩첩산중(疊疊山中) 속 애환

- 1) 단종의 애환 , 장릉
 - 1-a) 장릉의 구조
- 2) 민족 정서의 투영, 정선 아리랑
- 3) 교요 속의 월정사

1) 단종의 애환, 장릉

18 이지원

장릉의 역사



▲장릉

장릉은 조선 제6대 왕 단종(재위1452~1455)의 무덤으로,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196호로 지정되었다. 1681년(숙종 7) 7월 숙종은 단종을 노산대군으로 추봉하였고, 이후 1698년(숙종 24) 11월 정식으로 복위시킴과 함께 능호가 장릉(莊陵)으로 정해졌다. 장릉은 낮은 구릉에 모셔진 다른 왕릉에 비해 높은 곳에 모

셔져있으며, 대부분의 왕릉이 봉문, 정자각, 참도홍살문이 일직선상에 조영되지만 단종릉의 봉분은 신좌을향으로 모셔졌고 정자각은 북쪽을 향하고 있어 능의 옆구리를 향해 절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또한 능 주위에 세워진 석물의 수가 적게 구성되어 있다. 보통 왕릉 주위로는 다양한 종류의 석물이 두 쌍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 장릉에선 봉분 앞 상석과 장명등을 중심으로 망주석과 문인석 그리고 석마만이 각각 한 쌍씩 자리해 있을 뿐이다. 무인석이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장릉의 특이한 점이다. 문인석은 세우고 무인석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는 단종이 숙부인 수양대군의 칼에 의해 왕위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묘가 조성된 언덕 아래쪽에는 단종을 위해 순절한 충신을 비롯한 264인의 위패를 모신 배식단사,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홍도의 정려비, 묘를 찾아낸 박충원의 행적을 새긴 낙촌기적비, 정자각·홍살문·재실·정자 등이 있다. 왕릉에 사당·정려비·기적비·정자 등이 있는 곳은 장릉뿐인데 이는 모두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을 맞은 단종과 관련된 것들이다.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허수아비 왕으로 살다가 숙부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단종, 그가 잠든 곳 장릉을 방문하면 그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단종(端宗, 1441~1457)

단종은 1441년(세종 23) 7월 23일 문종과 현덕왕후 권 씨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휘는 홍위다.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붕어하고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다. 그의 곁에는 황보인, 김종서 등 삼정승이 있었고, 사실상 그들이 나라를 다스렸다.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수양대군은 결국 단종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건인 계유정난(1453년 10월 10일)을 일으킨다. 단종이 즉위한 지 1년 반 만이었다. 그것은 태종이 일으킨 제12차 왕자의 난과 함께 조선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권력 투쟁이었다.

수양대군과 한명회 등은 황보인, 김종서 등 주요 대신들이 안평대군을 추대하려는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걸고 전격적으로 거사했고, 그들을 대부분 숙청했다. 정난에 성공을 거둔 수양대군은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 후에 수양대군의 압박을 못이긴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나고 결국 수양대군이 본격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다.

단종이 유배를 가게 된 원인은 사육신 사건과 관련이 깊다. 사육신이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는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세조의 신하들은 역모의 근본적 원인을 상왕이라고 지목하였다. 그들의 강력한 주청에 따라 1457년 6월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다. 그 곳의 지형은 3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쪽으로는 절벽인 천혜의 유배지였다. 그러나 그의 유배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단종이 유배를 간 지 한 달 뒤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었던 금성대군이 순흥부사 이보흠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다가 발각된 것이다. 세조의 신하들은 다시 한 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했다. 결국 금부도사 왕방연은 사약을 가지고 영월로 간다. 실록에 따르면 10월 24일 왕방연이 영월에 도착하자 단종은 목을 매 자진했다고 되어 있다.

1-a) 장릉의 구조

18 이지원

조선 능의 구조

조선 시대 무덤은 무덤 속 주인공의 신분에 따라 능(陵)·원(園)·묘(墓)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이고, 원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무덤을 말한다. 왕을 생산한 후궁의 무덤도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왕을 낳은 친부모이지만 대원군의 경우는 특이하다. 즉 후일 왕으로 추봉이 되면 능호(陵號)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묘로 사용한다. 그리고 묘는 능과 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대부와 일반 서민의 무덤을 말한다.

능은 좌향(坐向)을 중요시하는데, 좌(坐)란 혈(穴)의 중심이 되는 곳이고, 좌의 정면이 되는 방향이 향(向)이다. 왕릉의 좌향을 보면 대부분 북에서 남으로 향하고 있다. 능은 산을 등지고[背山] 송림을 배경으로 아래쪽에 동·서·북 3면으로 곡장(曲牆)을 둘렀다.

곡장 안에 봉분을 만들고, 봉분의 밑부분에 12각의 병풍석을 둘러 봉분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예방했다. 그리고 봉분 주위를 다시 난간석(欄干石)으로 둘러 보호하였다. 난간석 바깥으로 능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돌호랑이, 돌양 네 기가 봉분을 호위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

봉분 바로 앞에는 상석(床石)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석 아래에는 귀면(鬼面, 귀신 얼굴 모양)을 새긴 고석(鼓石)이 상석을 받치고 있다. 그리고 상석 좌우에는 망주석 한 쌍이, 그보다 조금 낮은 곳에는 장명등이, 그 좌우에는 문인석과 무인석이 각각 석마(石馬)를 대동한 채 서 있다.

제향(祭享)을 지내는 건물인 정자각(丁字閣)은 정(丁)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정자각 뒤에는 제향 후에 축문을 태워 묻는 사각형의 석함(石函)이 있다. 정자각의 동편에는 능비(陵碑)를 세워 보호하는 비각(碑閣)이 있고, 비각 아래쪽에는 수복방(守僕房)이 있다. 정자각 정면으로 참도(參道)가 깔려 있고, 참도가 시작되는 곳에 홍살문이 세워져 있으며, 홍살문 오른쪽에 왕이 능에 제사를 지내러 올 때 홍살문 앞에서 내려 절을 하고 들어갔다는 배위(拜位)가 있다. 홍살문 밖 능역에 있는 재실에 능참봉이 상주했다.

하지만 장릉은 조선 시대의 다른 왕릉들과 비교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문화제로서 제향이 거행되고 둘째, 조선 시대 왕릉은 서울에서 100리를 벗어나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관례인데, 그 관례를 깬 유일한 왕릉이다. 셋째, 낮은 구릉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왕릉과는 달리 산줄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넷째, 규모는 크지 않으나 원형이 잘 보존되었다. 그럼 장릉의 주요 건조물을 살펴보자.

배식단사



▲ 배식단사

배식단과 배식단사는 1791년(정조15) 왕명으로 설립한 것으로 홍전문 밖에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는 계유정난, 병자옥사, 정축난에 연루되었거나 단종 복위를 꾀하다 죽은 충신들을 위하여 그 신위를 신분과 공적에 따라 4단으로 나누어 4개의 신위에 신분과 이름을 새겨 함께 모셔놓은 곳이다. 이 4개의 위판은 충신위, 조사위, 환관위, 여인위로 구성되어있고, 각 위에는 각각 그 관명과 시호가 기

록되어 있다. 이 위판에 모셔진 명단은 총 268명이다. 세 칸 중 가운데 칸은 충신위가 있고 양쪽에 환관위와 여인위가 설치되어 있다. 이유는 같은 공간에 모시기는 하지만 그 공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를 나누어 놓은 것이다. 정조는 장릉에 배식단을 세우고 추향할 사람을 엄선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영조 때 만들어진 ‘장릉지’와 ‘실록’ 등의 충분한 자료를 참조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또한 배식단사 내의 위판의 형성과 내용에 대한 것도 왕이 직접 지휘하였다. 즉, 현재 장릉의 배식단사에 구성되어있는 형식은 모두 왕의 명령에 정확히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여각과 낙존비각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큰 공을 세운 두 사람이 있다. 정여각과 낙존비각은 이들의 공로를 위해 만들어진 문화재이다. 먼저 장릉에는 엄홍도의 충절을 후세에 알리기 위하여 영조의 어명으로 세운 정여각이 있다. 야사에 따르면 단종의 시신이 청령포 물 속에 떠있었다고 한다. 이를 호장 엄홍도가 몰래 수습하였다. 그는 시신을 몰래 수습하여 동을지산 자락에 암장하였다. 그 당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엄포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엄홍도는 단종에게 충절을 받친 것이다. 이에 그는 순조 33년에 공조판서에 추증되었고, 고종 13년에 충의공이란 시호를 받았다.

엄홍도의 수습 이후 오랫동안 묘의 위치조차 알 수 없다가 1541년(중종 36) 당시 영월군수 박충원이 묘를 찾아내어 묘역을 정비하였다. 낙촌비각은 박충원의 충신 됄을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1973년에 세운 것이다. 그는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사후에 문경공이란 시호를 받았다.



▲ 정여각



▲ 낙촌비각

창절사



▲ 창절사

창절사는 장릉경내에 건립하였던 육신사에서 비롯되었다. 1685년(숙종 11) 강원도관찰사 홍만종과 영월군수 조이한이 3칸의 사우를 세웠다. 이에 1698년 노산군에 대한 복위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부터 왕릉 곁에 신하들의 사당을 둘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었다. 결국 1705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지게 된다. 이 후 1709년 영월

유생의 소청으로 ‘창절사’로 고친다. 당초에는 사육신만이 배향되었으나 창절사로 사액¹²⁾되면서 이후로 김시습과 남효온, 박심문, 엄홍도가 추가로 배향되었

으며, 창절서원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서원에는 2층 누문인 배견루가 정문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창절서원”이라 현액된 강당이 있으며, 그 뒷쪽으로 내삼문을 거쳐 들어가면 창절사와 동·서무가 있다. 내삼문에는 예전의 ‘六臣祠’ 현판이 걸려 있고, ‘창절사’ 현판은 1709년 윤사국이 쓴 것이다. 이곳의 건물은 1788년(정조 12)에 대대적인 보수를 비롯하여 그 뒤 여러 차례 중수와 보수를 거쳤다. 이곳에서 매년 봄·가을에 다른 능과는 다르게 제향을 올린다.

12) 임금이 사당(祠堂), 서원(書院), 누문(樓門) 따위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

2) 민족 정서의 투영, 정선 아리랑

18 고희진

정선 아리랑 박물관

아리랑 박물관에서는 아리랑의 역사, 정선 아리랑, 생활 속의 아리랑, 지역별 아리랑, 세계 속의 아리랑 등 다양한 방면의 아리랑을 알리고 있다. 지역 아리랑마다 고유의 음색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리랑의 공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아리랑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다. 요즘은 대한민국만이 아닌 세계 공연에서도 아리랑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수많은 편곡으로 새로운 아리랑이 탄생하기도 한다. 조선시대부터 시작하여 구한말,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인, 집단에서 나아가 국가적 고난까지 함께한 아리랑은 언제나 힘든 국민,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아리랑은 지난 2012년 독창성과 창조성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며, 여러 세대를 내려오며 공동체의 어울림과 단결을 가져다주는 노래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되었다. 아리랑 박물관은 한민족의 민요를 넘어 세계인의 노래인 아리랑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5천여 점의 아리랑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정선 아리랑의 유래와 의미

우리나라의 민요 아리랑, 아리랑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하며 구비 전승되어왔다. 한 노래 제목 아래 수천 가지의 가락을 만들며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주는 아리랑의 기원은 조선이 막 시작되기 시작 하던 600년 전의 정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알 수 있다. 아리랑 중에서 정선 아리랑은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광광 받아온 아리랑이면서 우리나라 아리랑의 시작을 이루는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정선 아리랑은 “아라리”라는 이름으로 정선을 중심으로 강원도와 경북, 충북, 경기도 동부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구비전승 되어왔다.

정선 아리랑은 정선의 특유한 지역적 풍토와 정선 지역민들의 다양한 삶(남녀간의 사랑, 고부간의 갈등, 산골마을의 힘든 삶, 뗏목 타는 일의 고단함과 유희 등)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 구전되어온 소리로서 정선지역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온전히 담고 있으며 우리 조상들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정선 아리랑은 어떻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정선 아리랑의 시초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 고려가 망한 후 고려에 13)불사이군의 충성을 다짐하던 여러 선비들이 나라가 조선으로 새로이 바뀌는 것에 반대하고 산 속으로 들어가 고려에 충성을 바치며 지조를 지켰었다. 불사이군 선비 72명 중 7명의 선비가 지금의 서운산으로 은신처를 옮기게 되었고, 이들은 지난날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맹세하며 평생을 산에서 야생초를 뜯어 먹으며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면서 지나간 시절의 회상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한시로 지어 노래조로 읊었는데 지방의 선비들이 이를 듣고 사람들에게 풀이하여 알려주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담아 부르던 시에 마을 사람들이 부르던 가락이 실려 애절함을 더해갔다. 세월이 흘러 흥선 대 원군이 임진왜란 때에 불타버린 경복궁을 중수하던 조선시대 후기에 고향을 떠나 중수에 참여했던 힘들고 고생스러움을 정선 아리랑의 가락에 맞추어 노래하였더니 이때부터 정선 아리랑 또는 정선아라리로 전국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한국의 아리랑들은 국내외를 통해서 지금까지 약 186종 2277편이 조사되었다. 그 중 정선 아리랑의 가사는 지금까지 채록된 것만도 1300여수가 넘어 세계 단일 민요 가운데 가사가 가장 방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소리 가운데는 소외되고 가난하면서도 낙천적으로 살아온 정선 사람들의 정서가 시대마다 서로 다른 빛깔로 고스란히 쌓여 있으며 이렇게 구전되어온 정선아리랑은 1955년 정선에서 처음으로 [정선민요집]에 수록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노력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1971년 12월 16일에 강원도 무형문화제 제1호로 지정되어 강원도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이 되었고, 체계적인 전승과 보전으로 우리나라 아리랑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무형문화제로 지정될 만큼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수많은 아리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아리랑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정선 아리랑제

강원도 정선에서는 정선 아리랑을 보존하기 위해 매년 정선 아리랑에 관련된 축제를 열고 있다고 한다. 정선 아리랑제는 강원도 무형문화제 제1호인 정선 아리랑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매년 자연, 사람, 아리랑이 함께하는 축제이다. 아리랑의 시원으로 평가되는 정선 아리랑을 후대에까지 전승 보존하기 위해 1976년부터 매년 정기적인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왔다. 10월 초중순경 풍요의 계절에 정선아리랑 및 이주 교포들의 고난의 역사를 간직한 해외 아리랑

13) 두문동 칠십이현이라 불린다.

과 지역 아리랑(북한, 경기, 밀양, 진도 등) 초청공연을 포함하여 민족의 정서를 가득 담은 정선 아리랑의 애환을 담은 대한민국 유일의 수상극 ‘뗏목 아라리’, 아리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선 아리랑 주제관, 정선 아리랑 및 장단을 배우고 익히는 아리랑 전수관, 전국규모로 펼쳐지는 정선 아리랑 경창대회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향토성 짙은 민속, 체험 행사를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고 한다.



▲ 정선 아리랑 공연

고향의 향수를 물씬 풍기면서 삶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정선 장터에서는 축제 기간 내내 장이 열려 향토 농산물과 먹거리를 싼 값에 풍족하게 살 수 있어 곳곳한 정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3) 고요 속의 월정사

18 김성빈

유래와 역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오대산 속에 위치한 월정사는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이다. 오대산은 태백산맥의 중심부에서 차령산맥이 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지점에 솟아 있는 1,563m의 산으로, 예로부터 외적의 방어에 유리하여 월정사, 상원사 등 유명한 사찰과 많은 유적을 지켜



▲월정사의 적광전

왔다. 월정사는 오대산의 동쪽 계곡에 있는데, 울창한 전나무 숲과 전각의 어울림 때문에 많은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삼국유사의 내용에 의하면 월정사는 634년(선덕여왕 12년) 당나라로 유학을 다녀온 자장율사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자장율사는 636년에 중국 오대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문수보살을 친견한다. 문수보살은 자장율사에게, “너희 나라 동북방에는 일 만의 내가 상주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다시 나를 친견하라”라는 계시를 주고는 사라졌다. 자장율사는 신라에 돌아오자마자 문수보살을 다시 만나기 위해 오대산에 들어가 그곳에 초가를 짓고 머물렀다. 비록 문수보살을 다시 친견하고자 하는 자장율사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자장율사가 오대산에 세웠던 초가는 후에 두타와 신의의 암자가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오대산을 빛내는 월정사의 시작이 되었다.

14) 1337년, 고려 충렬왕 때 화재로 모두 타버린 월정사를 이일스님이 다시 짓고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는데, 순조 때(1833년) 또다시 큰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로부터 12년 뒤인 헌종 때(1844년) 영담, 정암 등이 중건하여 큰 사찰로서의 모습을 되찾았다. 1900년대 초기에는 전국의 31본산의 하나가 되어 강원도 남부의 대표적인 사찰이 되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으로 영산전, 광웅전, 진영각 등 17동의 건물이 모두 불타고 월정사에서 보존되던 사료들과 문화재들이 모두

14) 『삼국유사』, 탑상 제4, 「대산 오만진신」. 한상길, 「오대산 월정사의 역사와 전통」, 『한국선학』제30호, 한국선학회, 2011, 382쪽에서 재인용

소실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지금의 월정사는 탄허스님이 1964년 적광전을 중건하고 만화, 현해스님이 뒤를 이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의 화재와 전쟁의 아픔까지 겪어 많은 문화재를 잃었으나 국보로 지정된 팔각구층석탑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아직도 월정사를 지키고 있다,



▲월정사 전도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1962년 국보 제 48호로 지정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의 높이는 15.2m이다. 우리나라 북쪽에서 주로 유행했던 다각다층석탑의 양식을 띠고 고려 초기 석탑을 대표한다.

층이 많음에도 늘씬한 모습을 보이고, 폭이 좁지만 안정된 느낌을 주는 석탑이다. 지붕 모양으로 장식한 탑신부는 귀족적인 불교문화의 모습을 보여 준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풍경과 금동으로 만들어진 머리 장식은 고려의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6.25전쟁 때 월정사의 많은 건물이 소실되면서 이 탑도 피해를 보았다. 피해 복구를 위해 1970년에 보수공사를 하던 중 탑신부에서 여러 가지 귀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부처님의 사리공과 사리 장치, 그리고 은으로 도금한 여래입상이 나온 것이다. 그 후 이루어진 발굴 조사에서는 이 석탑이 10세기 말 광종의 개혁정치시대 후반기에 만들어졌고¹⁵⁾, 월정사가 조선 세종 때와 광해군 때 고쳐지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15) 홍대환,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의 조탑배경과 건립시기 연구」, 『한국선학』 제38호, 한국선학회, 2014, pp. 194-196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팔각구층석탑을 향해서 오른쪽 무릎을 꿇고 왼다리를 세워 탑에 공양하는 모습을 한 높이 1.8m의 석상이 있다. 월정사에서 대표적인 문화재인 석조보살좌상이다. 모아 권 두 손에 무엇을 들고 있던 흔적이 있어 공양보살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⁶⁾ 보살의 이름은 ‘약왕보살(藥王菩薩)’로 월정사 사적의 「신효거사친견류오성사적(信孝居士親見類五聖事蹟)」에 적혀있으나 고려시대 정추의 시에는 문수보살이라고 쓰여 있어 확실히 알 수는 없다.

머리에는 원통형의 높은 관을 쓰고 있으며 장방형의 얼굴에는 인중과 코가 짧게 처리되었고 눈도 부은 듯 가늘게 뜬 모습을 하고 있어 더욱 풍만해 보인다. 강원도에 있는 다른 보살상들에 비하여 하체가 빈약하고 머리가 크게 강조되어 경직된 느낌을 준다. 조각 기법을 보면 대체로 11세기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각기법으로 보아 대체로 11세기 초 경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16) 김광호, 「월정사 약왕보살상 연구」,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 논문, 2013, p. 47

Ⅲ. 만경창파(萬頃蒼波) 속 풍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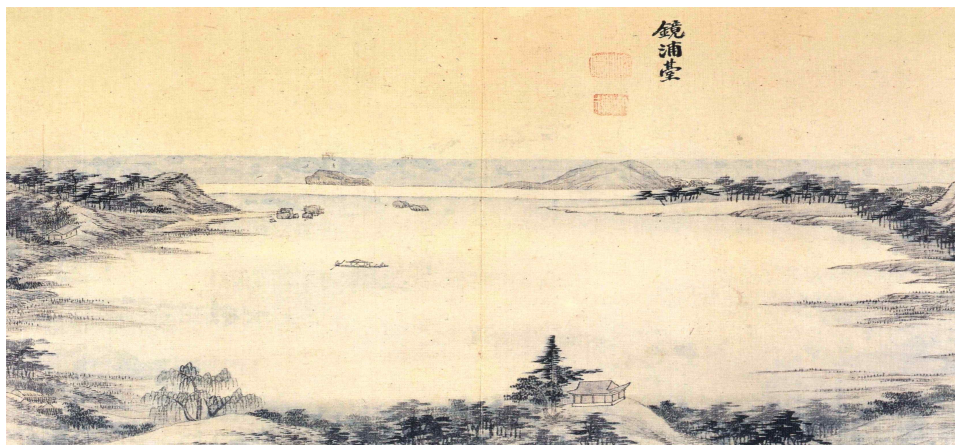
- 1) 부수어지는 파도, 경포대
- 2) 사대부들의 풍류, 선교장
- 3) 완벽한 구조와 기능, 강릉향교
 - 3-a) 관료의 길
- 4) 옛 강릉의 관공서, 강릉대도호부 관아
- 5) 율곡 이이의 출생지, 오죽헌
 - 5-a) 오죽헌 내 전시관

1) 부수어지는 파도, 경포대

18 손지호

강원도 강릉시 저동에 있는 정면 5칸, 측면 5칸의 팔작지붕 누각으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호이다. 1326년(충숙왕13) 강원도 존무사(存撫使)¹⁷⁾ 박숙정에 의하여 인월사 터에 창건되었으며, 그 뒤 1508년(중종 3) 강릉부사 한급이 지금의 자리에 옮겨지었다. 현재의 경포대 건물은 1745년(영조 21) 부사 조하망이 세운 것으로서, 낡은 건물은 헐어내고 홍수로 인하여 사천면 진리 앞바다에 떠내려 온 아름드리 나무로 새로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또한, ‘第一江山(제일강산)’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는데, ‘第一江山’이라는 편액은 ‘第一’과 ‘江山’의 필체가 다른 점이 특징하다. 그리고 경포대 정자 안에는 많은 명사들의 시문 현판이 존재하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숙종의 어제시가 있다. 숙종은 자신의 시에 자부심이 많아 시를 현판에 새겨 다른 지역에 걸어 두게 하였다. 또한, 궁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화를 보고 임금의 개인적인 정감을 나타낸 시를 짓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러한 근거로 경포대에 걸려있는 숙종의 어제시도 숙종이 경포대에 직접 방문하고 쓴 것이 아닌 김홍도가 그린 금강사군첩 중 경포대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명사들의 시문 현판은 관동팔경 중의 하나인 경포대의 뛰어난 절경을 잘 나타낸다.



▲김홍도 ‘금강사군첩-경포대’

경포대 내부의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층루 한 칸씩을 만들었는데, 남쪽은 득월

17) 재난이나 변란 따위의 일이 있을 경우에 백성들을 위무(慰撫)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는 임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현, 북쪽은 후선함 이라고 하였다. 경포대에 층루를 만든 상징적 이유는 경포대에서 바라본 주변의 우수한 경관을 통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성의로써 사물을 제어하고, 청렴으로 자신을 단속하고, 공평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고, 아랫사람을 위엄 있게 다스릴 수 있는 심성을 수양하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가진 것은 경포대 앞에 펼쳐져 있는 경포호이다. 경포천 하구 일대가 사빈의 발달로 폐쇄되면서 형성된 석호로, 이 호수의 둘레는 12km에 이르렀으나 경포호로 들어오는 토사의 퇴적으로 길이와 수심 모두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석호인 경포호 주변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으며, 그 너머로는 푸른 동해바다가 있다. 이에 경포대는 동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누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경포호는 구슬을 같아 낸 것처럼 맑고 거울에 비칠 정도로 청아하고 고와서 경호 또는 감호라 불렸다. 또한, 경포호수는 어질고 온화하며 풍량이 칠 때의 경포호수의 모습은 꺾꺾함을 자랑하는 선비의 자태와 같았다. 따라서 경포호수는 군자호 또는 어진 호수라는 뜻인 현호(賢湖)라고 불리기도 했다.

송강 정철은 경포대와 경포호 주변의 뛰어난 경치에 대해 「관동별곡」에서 이렇게 표현하였다.

十里(십리) 氷紈(빙환)을 다리고 고쳐 다려, 長松(장송) 울창한 속에 싫도록 펼쳤으니, 물결도 잔잔하여 모래를 헤아릴로다. 從容(조용)하다 이 氣像(기상), 闊遠(활원)하다 저 境界(경계), 이보다 갖춘 데 또 어디 잇단 말고.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송강 정철은 「관동별곡」에서 경포의 잔잔함이 비단을 다려 펼쳐놓은 것 같고 모래도 셀 수 있을 정도라고 극찬하였다. 정철은 경포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경포대를 관동팔경 중 으뜸으로 여겼다. 또한, 인조 때 우의정이었던 장유가 지은 중수기(重修記)에는 태조와 세조도 친히 이 경포대에 올라 사면의 경치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경포대는 풍류를 즐기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달, 호수, 바다, 송림을 봄으로써 심성을 가다듬고 수양하던 곳이다. 강릉 지역 사람들은 평온함의 상징으로 경포대를 인식하였고 방문자들은 심성을 수양하던 마음의 안식처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경포대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아름다움은 시공간적 변화에 따라 고대부터 현재까지도 사람들에게 조화미를 겸비한 우수한 문화유산이라 말할 수 있다

2) 사대부들의 풍류, 선교장

18 정재현



▲ 선교장 전경

강릉하면 오죽헌, 경포대 등의 많은 유적지가 있지만, 선교장을 빼고 강릉의 유적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 조상들은 유교적 가족관계에 기반을 두고 주거 생활을 해왔다. 오늘날의

주거문화는 과거 조상들의 주거 생활 역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에, 선교장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주거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교장은 조선 시대 사대부의 살림집이다. 선교장은 세종대왕의 형, 효령대군의 11대손인 가선대부 무경 이내번에 의해 처음 지어졌다. 선교장 예전 경포호가 지금보다 넓은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을 때 배를 타고 건너다니던 배다리마을(선교리)에 위치하여 ‘선교장(船橋莊)’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또한, 선교장은 이씨 일가의 살림집을 말하지만, 그 주인을 모시던 노비들이 살던 초가가 주변에 모여 선교장 촌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선교장 건물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모두 통틀어 선교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장의 구조는 활래정, 사당, 안채, 동별당, 서별당, 행랑채, 열화당,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선교장은 사대부의 가정집이었기 때문에 장유유서에 따라 건물의 바닥높이를 다르게 설정하였으며 북동쪽 언덕에는 돌아가신 조상을 모셨고, 살아있는 후손들은 그보다 아래 공간에 머물렀다. 그리고 남녀유별이라는 유교의 실천원리에 따라 남자의 공간(사랑채)와 여자의 공간(안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또한 선교장은 구한말은 가문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공익적인 의무를 실천하였다.

열화당

世與我而相遺 세상과 더불어 나를 잊으니
復駕言兮焉求 다시 어찌 벼슬을 구할 것인가.
悅親戚之情話 친척들의 정다운 이야기 즐겨 나누고
樂琴書以消憂 거문고와 서책 즐기며 우수를 떨쳐버리리라.

위의 구절은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 중 일부분이다. 열화당이라는 이름은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 중 悅親戚之情話 (친척들의 정다운 이야기 즐겨 나누고)에서 따온 것이다.

열화당은 선교장의 사랑채로서 선교장 가운데 가장 단아한 건물이다. 열화당은 순조 15년(1815) ▲ 열화당의 정면 모습



년)에 오은(鰲隱) 이후(李厚)가 건립한 건물이다. 열화당은 외벽을 들어올려 문짝으로 만들어서 여름철에 그것을 전부 떼어 걸어놓으면 전후좌우로 통풍이 되어 자연의 흥취를 만끽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열화당에는 햇빛을 가릴 목적으로 내달아 붙인 차양이 있는데 그것은 구한말 개화기에 설치된 것이라고 한다. 당시의 서양의 제국들은 조선 침략의 목적으로 전국산업조사를 벌였는데 러시아 공사관들이 선교장에 머물렀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머문 대가로 지붕에 동판과 부재를 가져다 지어 주었다. 또한, 러시아 공사관들이 지어준 이 차양은 격변기 근세의 역사를 단편으로 보여주고 있다.

활래정

半畝方塘一鑑開 반묘의 연못이 거울처럼 맑아
天光雲影共徘徊 하늘의 구름이 떠돈다
問渠那得清如許 묻나니 어찌하여 그렇게 맑단 말인가
爲有源頭活水來 위에서 활수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네.

위의 구절은 주자의 시 「관서유감(觀書有感)」 중 일부분이다. 활래정이라는

이름은 주자의 「관서유감(觀書有感)」 중 爲有源頭活水來(맑은 물은 근원으로 부터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활래정은 순조 16년(1816년)에 이후가 건립되었다. 또한, 활래정은 창덕궁 후원의 부용정과 흡사한 모습으로 축조되었으며 마루가 연못 안으로 들어가 돌기둥으로 받쳐놓은 누각이다. 그래서 활래정 일부가 물 가운데 떠 있는 듯한 형상을 갖추고 있다.

활래정은 내부에는 누마루, 온돌방, 다실이 있다. 또한, 2칸 온돌방이 마루와 합쳐져 ㄱ자형으로 놓여 있으며, 이 방과 마루를 연결하는 복도 옆에는 차 끓이는 다실이 있는데 이것은 근세 한국 특유의 건축양식을 볼 수 있다. 또한, 활래정은 개방적이며 정겨운 자연미를 맛볼 수 있다. 이러한 활래정



▲ 활래정의 정면 모습

의 모습에서 우리는 풍류가 넘실대는 곳에서 서로 시 한 수 읊조리는 시인들의 모습을 절로 상상할 수 있다.

3) 완벽한 구조와 기능, 강릉향교

18 정수진

강릉향교



향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지방에 설치되어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교교육을 했던 국립교육기관이다. 강릉향교는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9호로 지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제향공간인 대성전은 보물 제214호로 지정되어 있다. 1313년 고려 충선왕에 강릉 존무사¹⁸⁾인 김승인이 현재 자리에 건립하였고 1411년 조

선 태종에 불에 탄 것을 그 이후에 중건하였다.

강릉향교는 나주향교, 장수향교와 더불어 3대향교로 불릴 만큼 그 규모가 웅장했음을 알 수 있으며 지금까지도 보존이 잘 되어 있다. 강릉향교의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 명륜당¹⁹⁾, 동재, 서재, 동무, 서무, 내신문, 교직사 기타 부속건물 등이 있다. 대부분의 향교는 평지에 세워지는 반면에 강릉향교의 경우 경사 지형을 이용한 전학후묘²⁰⁾의 구조로 세워졌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향교의 바로 앞에 명륜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인 향교와 오늘날의 교육기관인 고등학교가 같이 있다는 부분에서 흥미롭다고 볼 수 있다. 향교의 소장전적은 6·25전쟁 때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향교는 불에 타지 않아 그 모습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강릉향교는 특히 규율이 엄격하고 면학 분위기가 높아 ‘대무관²¹⁾’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18) 고려시대 백성의 병고와 수령의 근무성적을 조사해 살피는 일을 담당할 지방관

19) 서울의 성균관이나 지방의 각 향교에 부설되어있는 강학당

20) 명륜당을 앞에 두고 대성전을 뒤에 배치하는 것, 강릉향교의 특징

21) (大廡官) 큰 고을, 또는 큰 고을의 원

향교와 당파

조선후기는 당파가 서로 정권을 다투던 붕당정치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 강릉은 노론의 당파가 주를 이루던 지역이었다. 조선후기 지방에서는 향교, 서원, 문중 사우 등 각 기구별로 각각 사림재회가 결성되어 있었다. 향교의 사림재회는 향교의 운영을 위한 회의체였고 그 성격은 향교가 가지는 공적인 성격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19세기 강릉향교는 향촌사회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구 향유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노론성향이 강릉지역에 다른 당파인 남인과 소론성향의 인물을 모시는 사당이 건립되고 강릉의 사족들은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향유들의 의견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19세기 강릉 향유의 쟁단은 삼사²²⁾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삼사의 위치 선정, 사당 건립 등의 이유들이 향유의 쟁단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강릉 지역 사회에서 나타났던 여러 형태의 쟁단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바로 강릉향교라고 할 수 있다.

22) 三祠 여기서 삼사는 호해정, 도동사, 약천사를 가리킨다.

3-a) 관료(官僚)의 길

18 정윤아

교육과정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두었으나 충과 효를 중시하는 현실적 실천윤리인 유교 또한 함께 중시하였다. 고려 초 왕건(王建) 이후 역대 고려왕들은 새 정치이념인 유교를 새 사회의 질서의 근간으로 두어 정치권력 구조를 조직하려 하였다. 따라서 유교를 가르칠 교육기관을 필요로 하였다. 992년(성종 11) 중앙에는 국자감(國子監)을 설치하였고, 지방 군현에 설치되는 향교(鄉校)는 공민왕대에 부쩍 늘어났다. 이어진 조선왕조에서 유학의 이념과 지식을 풍부하게 갖춘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였다. 때문에 중앙에는 성균관을 두고 지방 군현에는 향교를 두었다.

향교의 생도는 양인이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능했다. 향교 출신자는 소과(小科) 응시의 자격을 받았으며 역학(譯學출) 생도나 서리가 될 수 있었다. 향교에서는 『소학』, 『효경』, 『삼강행실』 등의 초학 서적을 먼저 읽게 했다. 그 다음으로 모든 과거시험의 텍스트인 사서오경을 읽게 한 후, 성적 우수자들은 『성리대전(性理大全)』, 『근사록(近思錄)』, 『통감(通鑑)』, 『송원절요(宋元節要)』 등의 경서(經書)와 역사서, 『문선(文選)』, 『초사(楚辭)』, 『유문(柳文)』 등의 시문과 산문을 읽고 문장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소과에 합격한 생원(生員)과 진사(進士)에게 성균관의 입학 우선권이 주어졌다. 성균관의 유생 수는 200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성균관에서는 향교와 같은 책에 대한 이해의 심도를 높이면서 중국 고대의 역사서인 『좌전(左傳)』,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 훈민정음의 음운서인 『동국정운(東國正韻)』 등을 읽게 하였다.

향교와 성균관에서는 과거의 시험과목과 일치한 과목을 가르쳤다는 점으로 보아 교육이 과거제 급제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료가 되기 위해 학교는 필수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과거제

광종은 고려 초기 왕권을 위협하던 호족 출신의 공신세력(功臣勢力)을 억압하고, 그들 대신에 새로이 유교적 교양을 갖춘 문신관료 중심의 문치적 관료체제(文治的官僚體制)를 갖추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958년 중국 후주(後周)에서 귀화한 쌍기(雙冀)의 건의에 의해서 과거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



▲ 《고려사》에 실린 과거 실시에 관한 기록

라의 관료선발제도로서 정착하게 된다.

고려시대에는 원칙적으로 양인 신분(良人身分)이라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있었다. 과거는 크게 제술과(製述科)·명경과(明經科)·잡과(雜科)로 구분되었다. 그 중에서도 제술과와 명경과는 조선의 문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합격하면 문관이 될 수 있었기에 흔히 양대업(兩大業)이라 하였다.

또한 고려의 과거에는 무과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데서 고려시대의 우문좌무(右文左武)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무과는 실시되지 않았지만, 승려들에게 승계(僧階)를 주기 위한 승과(僧科)는 시행되었다. 승과는 고려건국 초기부터 있어 왔으며 광종 때의 승계확립과 아울러 성행하여 많은 국사(國師)·왕사(王師)가 이로부터 배출되었다.

조선시대 과거에는 소과·문과·무과·잡과의 네 종류가 있었다. 소과에는 생원시와 진사시가 있었는데, 두 단계의 시험에 의해 각기 100인을 뽑아 생원·진사의 칭호를 주고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고시 과목으로 생원시의 경우 사서의(四書疑) 1편과 오경의(五經義) 1편으로 정해졌으나, 정조 때 오경의 중에서 춘추의(春秋義)를 빼고 사경의만 시험 보이는 것으로 바뀌었다. 진사시의 경우는 부(賦) 1편, 고시(古詩)·명(銘)·잠(箴) 중 1편으로 정해졌지만, 실제로 명·잠이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문과는 대과 또는 동당시(東堂試)라고도 하였다. 문과에는 원칙적으로 생원·진사가 응시하게 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의 문과는 식년문과와 기타의 문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무과의 고시 과목은 크게 강서(講書)와 무예(武藝)의 두 종류가 있었다. 강서는 사서오경 중의 하나, 무경칠서(武經七書) 중의 하나, 『자치통감』, 『역대병요 歷代兵要』, 『장감박의 將鑑博議』, 『소학』, 무경(武經) 중의 하나를 각각 희망대로 선택하여 『경국대전』과 함께 성적을 살펴서 등수를 매겼다. 기술관의 등용고시로서 역과(譯科:漢學·蒙學·倭學·女眞學)·의과·음양과(陰陽科:천문학·지리학·명과학)·율과 등의 네 종류가 있었다.

4) 옛 강릉의 관공서, 강릉 대도호부 관아

18 이현석

유래와 설명



▲ 강릉대도호부

강릉 대도호부는 사적 제388호이며, 1993년 강릉시 청사 신축예정 용지에 대한 발굴조사로 드러났다. 1389년에 강원 영동 지방의 행정적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강원 영동의 거진(巨鎭)²³⁾의 의미로 강릉 대도호부로 정하였다. 현재 강릉 대도호부의 객사문²⁴⁾은 이 터의 남측에 국보 제51호로 지정 보존되어 있고, 서 측에는 태

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셔다 봉안하였던 집경전(集慶殿)²⁵⁾터가 있다. 『임영지²⁶⁾』에 의하면, 강릉 객사²⁷⁾의 규모는 전대청(殿大廳)²⁸⁾ 9칸, 중대청(中大廳)²⁹⁾ 12칸, 동대청(東大廳)³⁰⁾ 13칸, 낭청방(廊廳房)³¹⁾ 6칸, 서헌(西軒)³²⁾ 6칸, 월랑(月廊)³³⁾ 31칸, 삼문(三門)³⁴⁾ 6칸 등 모두 83칸이었다고 한다. 건물에는 본래 공민왕이 1366년(무오년)에 낙산사 관음에 후사를 빌기 위하여 왔다가 길 이 막혀 열흘 동안 강릉에 머물렀을 때 쓴 ‘임영관(臨瀛館)’ 편액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객사문에 걸려 있는 편액은 1970년대에 다시 모사 제작한 것이다.

23) 각 도에 설치하였던 중간 규모의 군사 진영.

24) ‘강릉 임영관 삼문’의 옛 이름, 단층 박공지붕의 주심포(柱心包) 양식으로 만들어진 문.

25) 조선 초기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하던 전각.

26) 1788년 강릉 부사 맹지대가 편찬한 강원도 강릉지방의 읍지.

27) 과거 외국 사신이나 타지에서 온 관리를 묵게 하던 숙소.

28) 관리가 머물던 가장 큰 관청.

29) 가운데 위치한 가장 큰 관청.

30) 동쪽에 위치한 가장 큰 관청.

31) 관직인 ‘낭청’이 사무를 보는 곳.

32) 서쪽에 위치한 방(집).

33) 중심 건물들을 에워싸며 둘러선 건물.

34) 대궐이나 관청 앞에 세운 세 문.

역사적 변천

강릉 대도호부는 936년에는 강릉 대도호부가 아닌 동원경(東原京)이라 불렀었다. 986년에는 명주 도독부(溟州都督府)라 개명하였고, 992년(성종 11)에는 목(牧)으로 삼았으며, 995년(성종 14)에는 단련사(團鍊使)로 고쳤다가 후에 다시 방어사(防禦使)로 고쳐 불렀다. 1268년(원종 9)에 공신 김홍취(金洪就)의 고향이라 경흥 도호부(慶興都護府)로 격상되었다. 1308년(충렬왕 34)에 강릉부(江陵府)로 고쳤고, 1389년(공양왕 원년) 강릉 대도호부로 승격하였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세조(世祖) 때 진(鎭)을 설치하였고, 1666년(현종 7)에 박옥지(朴玉只)가 아버지를 생매장한 사건으로 인해 강릉현(江陵縣)으로 강등되었다. 1675년(숙종 원년)에 다시 강릉 대도호부로 승격되었다. 1782년(정종 6)에 역신(逆臣) 이택징(李澤徵)이 태어난 고을이라 하여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790년(정종 14)에 강릉 대도호부로 환원되었다.

강릉 대도호부로 승격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원나라와 명나라의 대치 속에서 북방의 안정을 위해 강원 영동 지방의 행정적 군사적 강화를 주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문화재와 관련한 사건과 인물



▲ 이택징의 시문집. 2권 1책. 장서각도서, 사공조참의소 부분.

다. 1761년 다시 등용되어 오랫동안 장령을 지냈다. 그러나 1782년 5월 왕의 명령에 응한 상소문이 이유백(李有白)의 대역부도죄 사건과 관련되어 봉조하(奉朝賀), 이최중(李最中), 그리고 그의 조카인 이의익(李義翊)과 함께 신문을 받다

강릉부 현재 강릉과 관련한 인물로 첫 번째 이택징이 있다. 이택징은 1738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45년 장령으로 처음 부임하였다. 1750년 북청부사(北靑府使)³⁵로서 치적이 일도에서 가장 뛰어나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 뒤 정언·장령을 거쳐 1753년 광주경력(廣州經歷)을 역임한 뒤 장령으로 다시 등용되었으나 곧 파직당한 뒤 한동안 등용되지 못하였

35) 조선시대 대도호부사와 도호부사를 통틀어 이르던 말.

가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반역죄인인 이택징의 고향 강릉부가 현으로 강등이 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정철이다. 정철은 임금으로부터 강원도 관찰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받는다. 강원도에서 그는 3월에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과 관동팔경을 두루 유람하는 가운데 뛰어난 경치와 그에 따른 감흥을 표현한 관동별곡을 쓴다. 관동별곡의 본문의 내용 중 ‘과연 고려 우왕 때 박신과 홍장의 사랑이 호사스런 풍류이기도 하구나. 강릉 대도호부의 풍속이 좋기도 하구나’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서 자신이 머물기도 했던 강릉 대도호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철이 쓴 관동별곡.

5) 울곡 이이의 출생지, 오죽헌

18 김세희

소개



▲ 오죽헌 전경

백두대간과 동해가 만들어 낸 관동지방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 명소인 오죽헌은 역사를 관조하며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역사적인 명소라고 할 수 있다.

오죽헌은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에 있는 조선 전기의 주택이다. 검은 대나무가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오죽헌(烏竹軒)’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울곡(栗谷)이이(李珥, 1536~1584)의 몽룡실(夢龍室)이 있는 별당 건물이다. 몽룡실의 이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설이 있다. 신사임당이 용꿈을 꾸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여 당대에 몽룡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또 다른 설로는 이이가 조선의 큰 학자로 부상하고 난 뒤, 후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된 후 붙여졌다고 한다. 건립 연대는 단종 때 병조참판과 대사헌을 지낸 최응현³⁶⁾ 고택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짐작해보아, 적어도 15세기 후반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죽헌은 조선시대 문신이었던 최치운이 지었다. 규모는 앞면 3칸·옆면 2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앞면에서 보면 왼쪽 2칸은 대청마루로 사용하였으며 오른쪽 1칸은 온돌방으로 만들었다. 지붕 처마를 받치는 부재들도 새부리 모양으로 빠져나오는 간결한 형태로 짜는 익공계 양식으로 꾸몄다.

오죽헌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 이야기

조선 중기 뛰어난 여류 예술가이자 현모양처인 신사임당은 1536년 12월 26일, 강릉 북평촌³⁷⁾에서 울곡을 낳았다. 울곡은 자라서 유명한 조선의 대학자이자 문

36) 1428(세종 10)~ 1507(중종2). 조선중기의 문신.

인이 된다. 어머니는 예술적 재능, 정결한 지조등 아름다운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그 자질은 아들로 그대로 이어진다. 이곳에 관해 자세히 말해보자면 조선 시대 상류층 주택의 별당 사랑채이며 율곡 이이를 출산한 몽룡실(夢龍室)이다. 또한 오죽헌은 율곡에게 어린 시절과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서린 곳이다. 6세에 서울로 상경했지만 여러 기록을 보면 강릉에 자주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율곡은 벼슬을 하면서도 강릉을 그리워하며 외조모가 병으로 위독할 때는 버리면서 강릉까지 가기도 했다. 현재 오죽헌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직접 가꾸었다는 율곡매가 있으며 율곡 이이의 시호를 따서 망명하여 율곡의 영정을 봉안한 문성사가 있다. 율곡의 유품인 ‘벼루’와 ‘토지양여서’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10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덧붙이자면 벼루의 뒤편에는 어제어필(御製御筆)이라는 정조의 친필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율곡의 유품의 보존을 위해 어제각(御製閣)³⁸⁾이라는 건물을 지어 보관하고 있다.



▲ 율곡유품 중 벼루



▲ 토지양여서

어머니와 아들의 추억, 율곡매

천연기념물 제484호인 율곡매는 강릉 오죽헌 몽룡실 뒤편에 위치해 있다. 오죽헌이 들어설 당시인 1400년경에 이 매화나무도 같이 심겨졌다. 그 후 오죽헌에서 살게 된 신사임당과 율곡이 직접 가꾸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므로 이이이 호인 율곡을 따서 율곡매라고 불렀다. 신사임당은 딸의 이름도 매창(梅窓)으로 지을 만큼 매화를 좋아했다. 또한 매화그림을 즐겨 그렸으며 이이의 용연벼루에도 읊트는 매화 가지를 새겼다. 매화꽃이 피고 열매 맺는 모습처럼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꽃망울이 없고 읊트는 가지만 새겼다. 율곡매는 매화의 여러

37) 오늘날의 오죽헌 일대

38) 율곡 이이 저서 『격몽요결』과 어린 시절 사용하던 벼루를 보관하기 위해 지은 곳. 당시 임금의 명을 받은 강원도관찰사 김재찬이 이를 보관하기 위하여 지은 집.

품종 중 꽃 색깔이 연분홍인 홍매(紅梅) 종류이며, 3월20일 전후 꽃이 필 때는 은은한 매향이 퍼져 오죽헌을 더욱 경건하게 한다.

울곡매는 다른 매화나무에 비하여 훨씬 알이 굵은 매실이 달리는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 신사임당과 울곡이 아끼고 가꾸던 나무일뿐만 아니라

신사임당의 자애로움과 울곡의 영특함을 품은 문화자원인 오죽헌과 함께 600여년 동안 보호되어 온 귀중한 자연유산이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깊은 나무이다.



▲ 강릉 오죽헌 울곡매

5-a) 오죽헌 내 전시관

18 문성은

강릉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지정학적, 인문사회학적 환경에 맞춰 특징적으로 형성돼 온 강릉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오죽헌을 방문하면서 같이 방문하기 좋은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영동지방에서 출토된 각종 선사 역사 유물과 도자기, 고문서, 전적, 서화류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구석기시대 유물로는 발한동 유적, 신석기시대의 유물로는 지경리 유적, 청동기시대 유물로는 방내리, 포남동 유적, 초기철기시대의 유물로는 강문동, 병산동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원삼국시대 유물로는 대규모 취락 유적지로서 원삼국시대의 주거양식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을 잘 보여주는 안인리 유적 출토물과 집터가 복원 전시되어 있다. 고분 유적으로는 신라시대의 고분인 초당동 유적이 모형으로 제작 전시되어 있으며, 불교유물로는 한송사지석 불좌상이 전시되어 있다. 도자기를 제작하는 과정을 재현한 장소 옆에는 강릉시 현내리에서 출토된 고려백자와 보광리 분청자요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편이 전시되어 있다. 그 앞에는 임영지³⁹⁾, 계첩⁴⁰⁾, 교지⁴¹⁾, 상서, 난설헌시집목판초간본, 홍길동전 등 우리지역과 관련된 역사서와 문집이 전시되어 있으며, 금강산도, 관동팔경도 외에 영동지방 서화가인 박기정, 황승규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문성사



▲ 문성사의 모습

1975년 오죽헌 정화사업 때 율곡 이이 선생의 영정을 모시기 위해 지은 사당이다. ‘문성’은 1624년 8월 인조대왕이 율곡 선생에게 내린 시호로 '도덕과 사물을 널리 들어 통했고 백성의 안위를 살피 정사의 근본을 세웠다.(道德博聞 安民立政)'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율곡 선생이 쓴 [격몽요결]과 버

39) 1788년(정조12) 강릉부사 맹지대가 편찬한 강원도 강릉지방의 읍을 단위로 작성한 지리지.

40) 불교의 수계식 뒤에 계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신표로 주는 첩.

41) 중국 송나라 때 발행된 최고의 지폐.

루를 보관하기 위해 건축된 어제각이 있었으나 사랑채 북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문성사를 건립하여 율곡 선생의 영정을 모셨다. 율곡 이이 선생 영정은 이당 김은호가 그린 것으로 1975년에 표준영정으로 선정되었다. 선비들의 평상복인 심의를 입고 검은색 복건을 쓰고 있다.

율곡 기념관

1965년 건립되었던 율곡기념관이 헐리고 지어지기를 반복하다 2012년 10월 21일 재건축하여 재개관하게 되었다. 전시관에는 오죽헌 소장 유물에 이창용 전 서울대교수가 기증한 유물을 더한 신사임당, 율곡 이이, 옥산 이우, 이



▲ 율곡 기념관의 모습

매창, 고산 황기로의 작품과 이우 후손 관련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사임당 작품으로는 채색 [초충도]와 수묵화, [초서]·[전서] 등의 글씨가 전시돼 있으며, 이이의 유품으로는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술한 『이이수고본 격몽요결』과 정조대왕이 집권한 뒤 직접 쓴 글씨가 새겨져 있는 [벼루], 그리고 그의 저서들이 전시돼 있다.

이매창 작품으로는 [참새]를 비롯한 서정성이 짙은 수묵화와 조선중기의 묵매양식을 잘 보여주는 [묵매도], 이우의 작품으로는 빠르면서 대담하고, 다소 거친 듯 하나 분방한 필선이 잘 드러나 있는 그림과 글씨가 전시돼 있다.

황기로의 작품으로는 조선시대 초서의 대가답게 활달하고 분방한 필치는 보여주는 [초서-이근옥 시]와 [초서가행 원석]이 전시돼 있으며 그 외 옥산 학정공파의 사회적 지위·문화적 교유·예술적 역량을 읽을 수 있는 덕수 이씨 후손의 유품이 전시돼 있다.

특히 율곡 기념관 속에서 보물 제 602호인 이이 수고본 격몽요결(李珣 手稿本 擊蒙要訣)은 율곡 이이(1536~1584)선생이 42세 때인 선조 10년(1577) 관직을 떠나 해주에 있을 때 처음 글을 배우는 아동의 입문교재로 쓰기 위해 저술한 것

이다. 그리고 이 책은 율곡이 직접 쓴 친필 원본으로 한지에 행서체로 단아하게 썼으며, 내용은 제1장 <입지>에서부터 <처세>의 항목으로 나누어 제10장으로 구성되어 서술하였다. 특히 이 책머리에는, 정조 12년(1788)에 이 책을 친히 열람하고 제목에 글을 지어 문신 이병모(1742~1806)에게 명해 이를 책머리에 붙이게 하였다. 『격몽요결』은 조선 중기이후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어 『동몽선습』과 함께 초학자의 입문서로 근세에까지 많이 읽혀져 왔다. 여러 차례 목판본이나 활자본으로 출간되어 왔으나, 유일한 친필본은 율곡의 이모가 시집간 권씨 집안에 율곡의 유품과 함께 대대로 소장되어 왔으며, 이것은 율곡이 친히 쓴 친필원본으로 그 가치가 크다고 평가된다.

향토민속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과 생업도구, 그리고 김영숙 선생 기증유물이 있다. 전시실을 들어서면 한약방용구와 각종 생업도구인 직조기지, 도량기구, 어업용구, 목공구, 산간지방에서 사용하던 사냥용구 등이 차례로 전시되어 있고, 한 쪽으로 강릉단오제의 전경이 전시되어 있다.



▲ 향토 민속관의 모습

주로 강원 산간 지방에서 사용되었던 물통방아를 경계로, 강원도 민예품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식생활 관련 용품, 여성생활용품, 남성들의 거처인 사랑방에 놓이는 문방제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김영숙 선생 기증 유물실에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작된 유아복, 젊은 남녀가 하나로 합쳐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존속시키기 위해서 치르는 혼인의 예에 사용되었던 혼례복, 오정색⁴²⁾과 오간색⁴³⁾의 천연염직물, 조형미가 돋보이는 노리개를 비롯한 장신구가 차례로 전시되어 있다.

42) 한국의 전통색. 오정색은 빨강, 파랑, 노랑, 흰색, 검정색이다.

43) 오정색 (빨강, 파랑, 노랑, 흰색, 검정) 사이에 놓인 색

Ⅳ. 참고문헌

1. 영월지역개관

『조선왕조실록 중 단종실록』, 국사편찬위원회.
(단종)

임호민, 「영월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년.
(영월의 역사)

영월군청

<https://www.yw.go.kr/www/index.do>

문화유산채널

<https://www.k-heritage.tv/brd/board/275/L/menu/254?brdType=R&thisPage=5&bbIdx=12153&searchField=&searchText=&brdCodeValue=&type=3>

(영월 청령포와 영월 장릉)

2. 장릉

김문식, 『18세기 단종 유적의 정비와 〈越中圖〉』, 장서각, 2013년, pp.83~86.

문화원형백과,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22696&cid=49270&categoryId=49270>

(배식단사[配食壇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2779&cid=46622&categoryId=46622>

(창절사 [彰節祠])

3. 정선지역개관

이행·홍언필,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 중기(1530년).

정선군, 『정선읍 지명유래』, 정선군 정선읍사무소, 2012년, pp.27~58.

이현수, 「정선지역 축제에 대한 연구 - 정선 아리랑제를 중심으로」, 『강원민속학』, 제 20권, 2006년, pp.623~63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정선지역 고지도)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정선아리랑)

정선군청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4. 정선 아리랑

박민일, 「아리랑의 남상, 정선 아리랑」, 『강원민속학』, 23권, 2009년, p.12.

<http://www.dbpia.co.kr/openlink.ajou.ac.kr/Journal/ArticleDetail/NODE01704139>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정선아리랑&idx=0&ot=8>

(정선 아리랑)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소책자

http://www.jacf.or.kr/bbs/board.php?bo_table=sub5_4_1&wr_id=21

정선 아리랑제 홈페이지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festival/festival.jsp?cid=506895>

(행사 소개)

아리랑 박물관 홈페이지

<http://arirangmuseum.or.kr/>

5. 평창지역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gotourl=http://kyujanggak.snu.ac.kr/home/GZD/GZD_JIMYUNGS.jsp?ptype=class^subtype=gy^lclass=01^mclass=%EA%B0%95%EC%9B%90%EB%8F%84

(평창 고지도)

이행 · 홍언필,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중기(1530년).

유명희, 『평창 지역 민요 자료 분석과 현황』, 강원민속학, 2009년, pp.63~89.

평창군청 군청소개

http://www.happy700.or.kr/index.happy?menuCd=DOM_000000105001001000

평창군청 소개마당

http://www.happy700.or.kr/index.happy?menuCd=DOM_000000105001001000

6. 월정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www.encykorea.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월정사공식홈페이지

<http://www.woljeongsa.org>

홍대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의 조탑배경과 건립시기 연구」, 『한국선학』, 제 38호, 한국선학회, 2014년.

김광호, 「월정사 약왕보살상 연구」, 중앙승가대학교, 2013년.

한상길, 「오대산 월정사의 역사와 전통」, 『한국선학』, 제30호, 한국선학회, 2011년.

7. 강릉지역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http://e-kyujan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대동여지도 강릉부분 출처)

이행 · 홍언필,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중기(1530년).

이남철, 『강릉의 이조시대주택』, 한국미술사학회, 1971년.

유네스코의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ichs/gangneung-danoje-festival/>

(강릉단오제)

강릉시청 홈페이지

<https://www.gn.go.kr/www/index.do>

강릉단오제위원회

<http://www.danojefestival.or.kr/default.asp>

(신주빚기 사진 출처)

정철, 『송강가사 성주본』, 1747년, 국립중앙도서관

8. 경포대

박종분, 『답사여행의 길잡이 3 - 동해 · 설악』, 돌베개, 1997년.

정철, 『송강가사』, 지식을만드는지식고전천줄, 2012년, pp. 47~56.

이종묵, 「조선시대 어제의 창작 양상과 그 의미」, 『藏書閣』, 제19집, 2008년, pp. 169~196.

임호민, 「강릉 경포대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지방사와지방문화』, 14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11년, pp. 409~4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933&cid=46656&categoryId=46656>
(경포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936&cid=46617&categoryId=46617>
(경포호)

한국데이터진흥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63514&cid=46721&categoryId=46878>
(김홍도 금강사군첩-경포대)

9. 선교장

최석훈, 『한국의 미 산책』, 해냄, 2007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21979&cid=42652&categoryId=42652>

박종분, 『답사여행의 길잡이 3 - 동해·설악』, 돌베개, 1994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57508&cid=42840&categoryId=42847>

이회봉, 「김태식 강릉 선교장 가족성원의 역할을 통해 본 전통 주거공간의 재조명」, 1997년, pp.6~7.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804ceca1356b6031#redirect

차장섭, 「강릉 선교장의 형성과 발전 장서각」, 2018년, p.3.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d82afdfa379a137a4884a65323211ff0

강릉 선교장 홈페이지

<https://knsgj.net/history>

10. 강릉향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원도의 향교건축」, 『유교건축총서』, 제2집, 2001년, p.20-45.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2_1_0&ccbaCpno=2113200990000

이상해, 『한국 미의 재발견 - 궁궐·유교건축』, 솔출판사, 2004년.

<https://terms.naver.com/list.nhn?cid=42665&categoryId=42667&so=st4.asc>

박종분, 『답사여행의 길잡이 3 - 동해·설악』, 돌베개, 1994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57497&cid=42840&categoryId=42847>

강릉시청

<https://www.g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722&bbsNo=85&nttNo=1072&searchCtgr=&searchCnd=SJ&searchKrwd=%ED%96%A5%EA%B5%90&pageIndex=1&integrDeptCode=>

11. 관료의 길

강기수 · 장사형, 『교육의 역사와 철학 탐구』, 양서원, 2013년, p.140~156.

이태진, 『새한국사』, 까치, 2012년, pp.299~302.

김경용,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교육법학연구』, 제16권 2호, 대한교

육학협회, pp.1~25.

김인규, 「향교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동양고전연구』, 제40집, 동양고전학회, 2010
년, pp.57~94.

박용운, 「고려시대 과거의 고시와 체계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제61·62호, 1988
년, pp.89~157.

이범직, 「조선전기 유학교육과 향교의 기능」, 『역사교육』, 제20권, 1976년,
pp.1~34.

이창길, 「기획논문 : 관료제와 "관료"의 탈일체화; James Q. Wilson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8권3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년, pp.5~33.

한동일, 「16세기 이후의 향교교육제도」, 『대동문화연구』, 제17권, 성균관대
학교 대동문
화연구원, 1983년, pp.247~26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중 관료제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관료&ridx=1&tot=191>

12. 강릉대도호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강릉대도호부
&ridx=0&tot=276#self](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강릉대도호부&ridx=0&tot=276#self)

(강릉대도호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573839&cid=51890&categoryId=53751>
강릉대도호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36377&cid=46622&categoryId=46622>

이택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관동별곡>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관동별곡](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관동별곡&ridx=1&tot=18)

(관동별곡)

13. 오죽헌

백선훈, 『신사임당』, 교원, 2002년.

한국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문화재대관)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청, 2009년.

문화재청국가문화유산포탈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강릉오죽헌을꼭매, 강원도문화유산과그삶의이야기)

박종분, 『답사여행의 길잡이 3 - 동해·설악』, 돌베개, 1994년.

14. 강릉시립박물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강릉시립박물관>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강릉시립박물관](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강릉시립박물관&ridx=0&tot=3)

(강릉시립박물관)

오죽헌, 강릉시립박물관

<https://www.gn.go.kr/museum/index.do>

ENDING CREDIT

지도교수님

조성을 교수님
김봉철 교수님
김종시 교수님
이상국 교수님
한상준 교수님

편집자

17 이승현
18 권진수
18 박연주
18 안슬비
18 오예진
18 이정민

제작자

반장 17 박지은
부반장 17 최 건
총무 17 천지현
역사기행반 18회원

AND

추계답사를 와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아주대학교 사학과 학생회
모두가 모여 하나의 올림을 내는 ‘하 올’
학생회장 17 류다영
부학생회장 17 이승현
2018. 9